

원전 주민들로부터 원자력 문화를

주 승 환

고려공업검사(주) 연구소장 · 공학박사

지역 신문 홈페이지

필자는 고향에서 발행되는 한 지역 신문 홈페이지 글을 올린다. 「주승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란 제목으로 매주마다 새로운 글을 올릴 예정으로 시작했다. 필자의 나이나 건강 조건은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고향 일에 투사처럼 도전하다 보니 오히려 젊은 혈기의 네티즌들 쪽이 감당 못해서일까(?) 댓글로 항변한다. 거기의 반대 쪽도 태풍을 몰고 올 노도처럼 거칠다.

엣그제까지 원전을 반대하던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고향이란 점도 선뜻 접근하기가 꺾끄러웠다. 필자는 3년 전부터 그 일을 기획했으나 지우기를 거듭하다가 뒤늦게 시작했다.

사실은, 아직도 원전센터 유치나 반대냐를 두고 올진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날로 과격화되고 있다. 언젠가는 불안 사태 같은 일이 내 고향에서도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상념들은 필자를 현장 참여로 내몬 간접 원인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만 현장 참여의 동기는 아니었다.

직접적인 근인은 고향에 원전이 있고, 필자의 전공이 원자력 공학이며, 그리고 고향을 위하여 전문가로서 열몫 중 하나라도 봉사할 용기 외는 뚜렷이 잡히는 것이 없다. 누가 시켜서, 하느님의 뜻 아니면 사탄(Satan)의 꾀에 빠져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뮬레이션 해 봐도 허사다.

이제 겨우 4회 째 글이 올랐다. 이미 네티즌들의 공격도 심심찮게 받았다. 벌써부터 무슨 기대를 걸자는 것도 아닌 터에,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 접속할 네티즌들의 수요도 성에 찰리 만무다. 어느 정치인의 홈페이지는 천문학적 네티즌들이 접속한다고 들린다. 거기에 견준다면 기가 죽을 만큼 고향의 홈페이지는 겨우 세 자리 수요가 고작이다. 이런 저런 일들로 심기는 불편하다. 한 네티즌의 리플처럼 “당신이 뭔데…?” 대답이 궁해진다.

나보다는 먼저 원전이 안전하기를

필자 고향에서 올진 5호기가 막 발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원전들이 거기에 줄줄이 건설될 예정임도 알고 있다. 공교롭게, 세계가 놀랐던 쓰리마일 그리고 체르노빌 같은 대형 원전 사고들 이후로, 원전 주민들은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은 산불이나 태풍 아니면 지진 같은 자연 현상들만 일어나도 군 전체가 바짝 긴장한다.

원전 자리가 한 30여리밖에 안되게 이웃한 군민들은 행정 관할 지역 이름만 다를 뿐인데 그들은 태연하면서 아무 말이 없다. 하지만 100여리나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행정 관할 이름 때문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 경우를 당할 때면, 그들은 먼저 나보다는 원전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애를 태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막연하게, 그리고 짐작으로만 알고 있었던, 원전 주민들의

원자력산업 부문에도 문화 재단이 따로 있다.

하지만, 원전 지역 주민들은 그런 재단이 무엇 하자는 재단인지도 잘 모른다.

원자력 문화는 먼저 원전이 자리한 현장에서 발동이 걸려야 옳다. 다음으로 원전과 더불어 살아갈 현장 주민들에게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자체 조직은 그런 정서를 선도해야 한다.

원전 현장과 거리가 먼 서울에 본부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아닌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바에야 문화 사업의 명분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

원전 반대 정서를 원전 현장이 아닌 전혀 다른 장소의 정서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해하여 왔으며, 그리고 거기에 잘못 대처해 오지나 않았을까 의구심을 가진다.

필자의 정보에는 그런 현장 증거들이 새롭게 감지된다. 모르긴 하지만, 그제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참모습이요 바닥을 훑는 정서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원자력 문화 홍보를 주도한 다양한 전략들은 아무런 효험도 없는, 오히려 병을 도지게 한 처방일 수도 있을 것이다.

원자력 문화 재단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문화 재단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은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몫을 도와준다는 명분을 앞장세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장·차관 출신 아니면,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수 없는 선비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원자력산업 부문에도 문화 재단이 따로 있다. 하지만, 원전 지역 주민들은 그런 재단이 무엇 하자는 재단인지도 잘 모른다. 원자력 문화는 먼저 원전이 자리한 현장에서 발동이 걸려야 옳다. 다음으로 원전과 더불어 살아갈 현장 주민들에게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자체 조직은 그런 정서를 선도해야 한다. 원전 현장과 거리가 먼 서울에 본부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아닌 원자력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바에야 문화 사업의 명분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

문화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에, 문화를

제조할 기술인은 존재할 수 없다. 그토록 돈줄로 얹어 맨다고 창달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문화는 역사가 만들어 낸다. 제발! “내가 문화 창달을 주도할 테니 국가는 돈줄을 대라”는 헛소리에 현혹되지 말자!

필자는 본지에서 자기 '달마'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다. 꽃구경할 여유만큼이나 한가한 지금의 문화 운동 차원은 아니다.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 몸의 일부가 잘려나갈지라도, 올바른 일이 먼저이다.

필자에게는 국무총리처럼 막강한 권력도 없다. 방송 매체를 통해 신행정 수도 이전 홍보물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할 여력도 없다. 문화 창달을 위한 국가 홍보는 문화부가 따로 한다. 국무총리가 왜 앞장서야 할 긴급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모양새가 안 좋다. 애초부터 그 이름에 틈새가 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 고정된 한 모양새를 기대하기란 공염불에 가깝다.

총동질

19세기 말, 루트비히 볼츠만(Ludwig Boltzmann)은 '원자가설'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는 일생 동안 거기에 매료돼 엔트로피의 우주 공식을 수리적으로 증명해 업적을 남겼다.

1897년 1월, 그는 빈 과학원 학술 발표에서 원자론을 주장했다. 발표가 끝나고 토의 도중에, “나는 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는 충격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 에른스트 마흐(Ernst Mach)의 격양된 공격이었다. 발사체의 추진 속도인 '마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흐는 당시에 50대 후반이었고, 빈 대학의 과학

사와 과학철학 교수였다. 볼츠만은 그보다는 좀 젊은 물리학자였고, 빈 대학으로 귀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세기적인 위대한 과학자이던 그도 한동안 '원자론'을 믿지 않던, 마흐 같은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된다. 그런 성가신 일들은 볼츠만을 과학 분야에만 몰입할 수 없게 했다. 철학에 눈을 돌려 연구하면서 그들의 반론에 맞서야 했다. 주변 여건들로부터 충동을 심하게 받은 것이다. 그런 충동질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가 추구하던 원자론을 밝히려고 독창적인 확률론의 접근을 시도했던 그의 업적은 한 15년이나 미뤄져야만 했던 불행한 사건들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다.

필자는 역사책을 쓰는 심정으로 지방의 홈페이지 글을 올릴 것이다. 첫 글에서 필자의 심경을 밝혔듯이,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서를 달래줄 길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 쟁점들을 찾아서 자세히 물어보고 열정을 다해 성실하게 답해가는 글을 올릴 것이다.

원자력을 전공한 한 전문가의 역할보다는, 돈만 축내는 문화 재단의 거창한 사업도 아닌, 돈 한 푼 안 들일 나름대로의 개인 원자력 문화 활동으로 봉사하면서 현장을 스케치할 것이다. '원자력 문화 창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찾아 헤맬 한 지식인이 되고 싶을 뿐이다. 다음 글은 <울진신문> 홈페이지 올린 글로서, 아주 일부분을 수정하여 전재한다.

「주승환의 원자력 세상 보기」④: 「울진 원전 5호기가 전기를...」(www.uljinnews.co.kr/자유게시판)

며칠 전부터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오늘 서울 기온이 34.5도를 기록했다. 예년 같았으면, 예비 전력 얘기가 자주 튀어나왔을 테지만, 아직까지 잠잠하다. 한 수원은 2004년 7월 29일 0시부터 울진 원자력발전소(원전) 5호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이제 막 돌아가는 그 '5호기'도 예비전력에 보탬을 줄 한 원근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가정들이 고루 나눠 쓸 전기를 만들어낼 한 공장으로서, 원전 반대 단체들에게는 눈에 낀 가시일진 몰라도, 필자의 바람은 그 시설이 앞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면서, 모든 기계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 주기를 기원한다.

'5호기'의 운전을 계기로, 이번 주의 주제는 <'전기'와 '원자'>로 정했다.

우리 문화 생활은 전기를 떠나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전기를 쓰는 많은 이들은, 전원 스위치만 누르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스위치를 온-오프 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모든 편의 시설들, 예컨대 냉장고·에어컨·선풍기·라디오·TV·홈-시어터·오디오 그리고 조명등 등이 움직이고 밝혀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 요술쟁이 전원 스위치는 내 마음대로 작동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자주 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집안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전선들에 연결돼야 하고, 집안의 두꺼비집을 거쳐야 하며, 밖으로 뻗친 전선은 전봇대의 변압기로, 그리고 지역 변전소에 연결돼 있어야 한다. 더 멀리 보면, '5호기'와 같은 원전 발전소까지 전선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 그래야 전원 스위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누구나 일상 생활을 하면서 전기 현상을 쉽게 경험한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전기 외에도 천둥 번개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인 전기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에 관한 용어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실일 것이다. 필자도 가끔씩은 헛갈리는 경우가 있다. 네티즌들과 함께 그것들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질 '원자'에 대한 얘기는 좀 길고 장황된 스토리로 엮어 가야 될 것 같다. 그에 관한 많은 얘기들

불별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서울 기온이 34.5도를 기록했다. 예년 같았으면,
 예비 전력 애기가 자주 튀어나왔을 테지만, 아직까지 잠잠하다. 한수원은 2004년 7월 29일 0시부터
 울진 원자력발전소 5호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이제 막 돌아가는 그 '5호기' 도 예비 전력에 보탬
 을 줄 한 원군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가정들이 고루 나눠 쓸 전기를 만들어 낸 공장으로서,
 원전 반대 단체들에게는 눈에 낀 가시일진 몰라도, 필자의 바람은 그 시설이 앞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면서,
 모든 기계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 주기를 기원한다.

은 다음으로 미루고 간단한 원자 얘기만을 골라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전기 용어들: 전류, 전압, 전위 또는 전장, 전하량,
 전력량 그리고 킬로와트시>

전기 용어들은 가지 수도 많지만, 각각 지정된 나름대
 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뜻을 바로 알면, 전기와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도움을 줄 것이다.

전문 분야로 치면, 필자가 특별히 이들 용어들을 설명
 하지 않아도 될 성 싶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전기도
 알고 나면 한 원자의 모습을 이룬 전자들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원자들의 물리 현상이란 공통점을 가진다.

전기란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들 중의 하나이다. 전기
 에너지에는 '정전기(靜電氣)' 도 포함된다. 대개는 수없
 이 많은 전자(물리량 표시는 e)들이 물 흐르듯 흘러가면
 서 생기는 운동 에너지의 한 모습을 이룬다. 전자들의
 흐름이란 뜻인 '전류' (그의 세기는 흐름 전자들의 수효
 가 많고 적은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그 단위를 암페어,
 A로 나타냄)란 이름으로도 쓰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자석에는 두 개의 극들인,
 북극(N) 그리고 남극(S)이 있다. 이들 두 극들 사이에는
 자석의 힘인 자력선이 지나간다. 이런 힘이 미치는 공간
 을 '자장(磁場)' 이라 한다. 자장의 세기는 N과 S극 양쪽
 힘의 세기 나뉘고, 거기를 통해 흐르는 자력선들의 수
 효들과도 밀접하게 관계된다. 자력선들의 흐름 방향은
 언제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전류의 흐름은 양(플러스) 전기들이 모인 양극(+)(양

전하(陽電荷)라고도 함) 그리고 음(마이너스) 전기들이
 모인 음극(-)(음전하(陰電荷)라고도 함)이란 두 극들이
 있어야 한다. 그 둘 사이에는 자장처럼, '전위(電位)' 또
 는 '전기장(줄여서 전장(電場))' 이란 힘이 미칠 공간이
 반드시 생긴다. 전장의 세기는 두 극들의 '전하량(電荷
 量)' 나뉘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압' (단위는 볼트, V)은 전위
 또는 전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즉, 플러스 극
 (+) 그리고 마이너스 극(-) 사이에 흐를 전자들의 수효
 를 많이 혹은 적게 할 힘이 생겨난다. 마치 수도관에 흐
 르는 물은 수압이 높낮이에 따라 거기를 흐를 물의 양도
 따라 바뀌듯이, 수압처럼 전압도 전자의 흐름에 크게 영
 향을 미친다. 전압은 두 극들에 모여진 플러스와 마이너
 스 전자들의 수효들 나뉘이다.

전자들은 전장에 생긴 힘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
 스 극 쪽으로 흐르게 된다. 이런 전자들의 흐름이 곧 전
 류이다. 전류의 세기는 흐름 전자 수효들로 가늠된다.
 흐름 전자들의 수효들은 전장의 전압 높낮이에 따라 많
 이 또는 적게 흐른다.

전류와 전압은 전기 에너지가 할 일(전력(電力))을 결
 정한다. 전류 × 전압 = 전력으로 표시한다. 전력의 크고
 작기를 나타낼 때, 전력의 양('전력량')으로 나타낸다.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가 일할 단위 시간도 생각해야 한
 다. '적산 계량기' (줄여서 '계량기')란 편리한 도구가
 있고,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거기를 흘러간 전력량을
 모두 합쳐 나타낸다.

대체로 한 시간 동안 전기가 한 일은 '와트시(Wh)' 란

단위로 나타낸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쓴 전력을 합치면 그 양이 아주 커지므로 '와트시(Wh)' 단위로서는 쓰기가 아주 불편하여 1000 배인 '킬로와트시(kWh)'로 표시하여 한 달 동안 쓴 전력 요금('전기 요금'은 잘못 쓰인 말)을 매긴다.

작년 말에 올진 원전본부에 있는 4개의 원전들은 하루에 평균 약 1억 킬로와트의 전력량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5호기'도 1억 킬로와트의 1/4인 2천5백만 킬로와트를 하루에 더 보태게 될 것이다.

〈원자, '동위원소' 그리고 '핵종'〉

위와 같이 엄청난 전력량은 어디서 나올까? 두 번 말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자'들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 원전도 다른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들처럼,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어낸다. 발전기를 돌릴 열을 얻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다.

발전기를 돌릴 에너지는 여러 가지 자원들(수력, 화력, 풍력, 태양열, 태양빛, 지열, 파도의 조력, 수소연료, 바이오(알코올) 그리고 원자력)들을 쓸 수 있다. 그들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 쓰느냐에 따라 'OO발전소'란 이름이 붙을 것이다.

올진에는 '올진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한수원의 올진원자력본부가 그 일을 맡고 있다. 원전은 대체로 우라늄 연료를 태워 열을 얻는다. 우라늄은 별 것 아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두 92 개나 되는 '원소(元素)'들 중 하나의 원소일 뿐이다. 다만 원전 연료로 쓰기에 알맞게 좀 까다롭게 가공을 더한 것일 뿐, 우라늄 원소인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원소들은 '동위원소(同位元素)'란 것들과 섞여서 같이 '거동(舉動)'한다. '거동'이란 낱말도 재미있는 표현이다. 다른 원소들끼리 또는 그들 속에 시약 같은 것을 넣어 섞고, 그들의 화학적 변화를 살펴보면, 개별 원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거동이라 쓴다.

동위원소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 프레더릭

소디(Frederick Soddy)가 처음 쓴 이름이다. 그는 화학을 전공했고, 러더퍼드가 캐나다의 맥길 대학으로 부임하면서 그의 연구를 도울 화학을 전공한 소디가 필요했다.

그 때 러더퍼드는 맥길 대학에 오기 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케번디시에서 연구했던, 베크렐이 발견했던 방사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알파선' 그리고 '베타선'을 발견하였고, 맥길 대학에 온 후에 1899년 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 방사선들의 화학적 거동을 감시할 화학자를 찾던 중에 소디를 알게 된다. 1900년 대학을 막 졸업한 그를 거기에 초청하여 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면서 '동위원소의 역사'가 시작된다.

화학자들은 92 종류나 되는 모든 원소들의 성질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주기율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자주 그 표의 덕을 본다. 주기율표는 연금술 시대부터 전해오던 화학 원소들의 성질들을 쉽게 구분해 둔 한 표이다. 모든 원소들은 주기율표 위에 한 자리씩 차지할 자석이 지정된다.

소디는 비슷한 화학 성질을 가진 원소들을 주기율표에 배치시키다 보니 같은 원소이면서도 그 중에는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들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자리는 같지만, 다른 원소이다'는 뜻으로 '동위원소(同位元素)'란 새로운 이름을 작명했다.

소디는 운 좋게도 세기적 물리학자이던 러더퍼드(16명의 제자들을 노벨상을 받게 했던, 지금까지 그 기록을 남긴, 보어는 그를 제2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던) 밑에서 연구한 덕을 톡톡히 봤던 것이다. 개별 원소의 물리적 성질을 눈여겨봐둔 것 때문에 역사적 사건인 동위원소를 발견해낸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화학자들은 화학 반응을 살피는 데 원소와 동위원소를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 원소와 같이 화학적으로 거동하는 동위원소는 원소의 개념만으로도 만족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이용하는 쪽에서는 동위원소란 것은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다.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살아본 이들은 그들이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한다.

우리 속담에 “호박이 냉쿨채로 굴러 떨어졌다”는 말이 있다. 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을 뜻하는 비유로 자주 인용된다. 복잡하게 얽힌 전원 스위치를 잡아끌면, ‘호박이 냉쿨채로 굴러 떨어지듯’, 발전소까지 와 닿게 될 것이란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원 스위치를 켤 때마다 원전에서 생겨나는 ‘원전 쓰레기’ 들(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그리고 화력 발전소의 온실 가스 들의 문제들만 생각해도 절전하지 않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만일 아니라면 그쪽이 이상한 것이다. 절전은 우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니다. 원소와 동위원소 사이에는 ‘원자량’이란 물리량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물리적 성질도 많이 다르므로 원소는 자연스럽게 ‘원자’란 단위로 다시 쪼개야 쓸모가 있게 되었다.

‘원자’ 대신에 ‘핵종(核種)’이란 말도 쓰인다. 원자의 에너지(원자력)를 다른 연구 목적으로 쓸 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써오던 보통 이름의 ‘원자’ 개념은 ‘핵종’이란 현대 감각에 잘 어울릴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보통 쓰일 때, 원자, 동위원소 그리고 핵종 셋은 같은 뜻이긴 하지만, 그들의 쓰임에서 낱말의 뉘앙스가 전문가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해진다.

〈절전하는 생활 지혜〉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다.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살아본 이들은 그들이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한다.

우리 속담에 “호박이 냉쿨채로 굴러 떨어졌다”는 말이 있다. 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을 뜻하는 비유로 자주 인용된다. 복잡하게 얽힌 전원 스위치를 잡아끌면, ‘호박이 냉쿨채로 굴러 떨어지듯’, 발전소까지 와 닿게 될 것이란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원 스위치를 켤 때마다 원전에서 생겨나는 ‘원전 쓰레기’ 들(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그리고 화력 발전소의 온실 가스 들의 문제들만 생각해도 절전하지 않을 바보는 없을 것이다. 만일 아니라면 그쪽이 이상한

것이다. 절전은 우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전력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 생활에 꼭 필요한 전원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원전 쓰레기와 이산화탄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핵 단체나 환경 단체들은 그런 말들을 삼간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발전소와 바로 연결된 사실도 그들 구호에서 찾기 어렵다.

코엘료 작가의 지혜

코엘료 작가의 「연금술사」를 감명 깊게 읽었다. 몇 주째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책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를 따라잡다가 우연히도 그의 행적이 지금까지 걸려온 필자의 생애와 닮은 곳이 있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인생 여정이 주인공의 것과 다른 점이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바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금은 보화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고난의 사하라 사막을 건너 갔었다. 하지만 나중에야 진정한 연금술의 문리를 깨우친다. 필자에게는 당초부터 그런 꿈은 없었다.

필자는 자연의 섭리를 ‘우주 공식’이라 표현하지만, 그는 ‘은혜의 섭리’ 또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표현한다. 필자에게 행운은 필자의 전공이 원자력이고, 고향에 현장이 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인위적 요소가 많다. 「연금술사」에서 말하는 ‘마크툽’은 필자가 믿는 이미 정해진 인생 삶의 소프트웨어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